



고려대학교병원뉴스

KOREA UNIVERSITY HOSPITAL NEWS

발행인 | 박승하 · 발행처 | 고려대학교병원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73(안암동 5가) · 전화 | 1577-0083 · Fax | 02)920-5770 · 홈페이지 | http://anam.kumc.or.kr

2013
March

03

발행 | 3월25일 · 월간 · No.69

新명의, 말기 위암환자도 수술로 삶의 질 높인다. 위장관외과(상부) 박성흠 교수



약력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상부위장관외과 분과장
대한위암학회 이사·재무위원
대한외과학회, 대한암학회 평생회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평생회원
대한 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평생회원
국제위암학회 정회원
대한 외과대사영양학회 평생회원, 무임소 이사

국내 위암 진료수준은 세계 최고수준

우리나라의 위암 진료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국내유수 병원의 경우 수술합병증 발생빈도는 10~20%, 수술사망율은 1% 내외이다. 박 교수팀은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복강경 위절제수술의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하여 국제학회지에 발표하였으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수술전후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율을 더욱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 광범위한 다학제 치료

고려대병원에서는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된 경우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술, 항암화학요법등을 포함한 다학제적 치료를 하고 있다. 최씨의 경우처럼 병의 진행정도, 환자의 전신상태 등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여러과의 협진을 통해 최선의 치료방법을 찾는 것이다.

말기 위암환자도 수술로 삶의 질 향상

박 교수팀은 수술의 치료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4기 위암 환자들중 수술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완화 수술 대상군의 엄격한 선별 기준을 정립하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 호르몬 이용한 위암치료 연구 진행

여성의 위암발생율이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암의 치료에 여성호르몬을 이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암세포주를 이용한 기초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대한위암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新명의, 악관절 임플란트 전문. 치과 류재준 교수



약력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치과과장
고려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 심미수복학과 주임교수
대한심미치과학회 차기회장
아시아임플란트학회(AAO) 이사
대한노년치의학회 총무이사
대한치과보철학회 이사
대한치과수면학회 이사
국제임플란트학회(ICOI) 부회장
대한치과디지털학회(KADD) 부회장

한쪽으로만 씹으면 안면비대칭 유발

음식물 등을 씹을 때 한쪽 치아만 사용하면 잘 씹는 쪽의 안면근육이 비 정상적으로 발달하여 안면비대칭의 원인이 되고, 주로 사용하지 않는 쪽은 충치, 풍치 등으로 치아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

치과 류재준 교수팀이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192명의 환자(남: 81명, 여: 93

명)를 조사한 결과, 32.8%의 환자가 안면비대칭을 가지고 있고, 이중 33.3% 가량은 비대칭도가 심해 치아교정 및 턱.관절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식물을 한쪽으로만 씹을 경우, 안 씹는 쪽은 점점 약해지고 더 안 씹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풍치와, 충치 등이 발생해 치아건강에 좋지 않게 된다.

수면무호흡 있으면 치주질환 발병율 2배 이상 높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치주질환이 2배에서 최고 11배까지 많아진다. 수면무호흡증환자들이 치주질환이 더 많은 이유는 수면시 호흡을 돕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이며,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고혈압 역시 치주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치주질환은 55세 이상의 고령 수면무호흡 환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치주질환은 이로 인한 2차 감염과 치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거점병원기부

13.03.11 고승연(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공명훈(77학번동기회) ₩ 3,600,000
13.03.11 구재림(77학번동기회) ₩ 3,000,000
13.03.11 김기섭(77학번동기회) ₩ 2,000,000
13.03.11 김성봉(77학번동기회) ₩ 3,000,500
13.03.11 김수동(77학번동기회) ₩ 2,000,000
13.03.11 김열홍(77학번동기회) ₩ 2,400,000
13.03.11 김영민(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김우현(77학번동기회) ₩ 1,200,000
13.03.11 김창희(77학번동기회) ₩ 3,000,000

13.03.11 김해중(77학번동기회) ₩ 2,000,000
13.03.11 김항(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김혜원(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김혜원(77학번동기회) ₩ 4,000,000
13.03.11 익명(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박형자(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배상열(77학번동기회) ₩ 3,000,000
13.03.11 백은주(77학번동기회) ₩ 5,000,000
13.03.11 승경록(77학번동기회) ₩ 3,000,000
13.03.11 신경린(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우경란(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유동화(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유영실(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유정애(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이강오(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이계자(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이도근(77학번동기회) ₩ 2,880,000
13.03.11 이명석(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이혜경(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장광우(77학번동기회) ₩ 2,000,000

13.03.11 정성욱(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정수봉(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조성우(77학번동기회) ₩ 2,000,000
13.03.11 최경재(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최남수(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최영진(77학번동기회) ₩ 1,000,000
13.03.11 한순심(77학번동기회) ₩ 1,500,000
13.03.11 한희철(77학번동기회) ₩ 5,000,000
13.03.11 황용희(77학번동기회) ₩ 1,000,000

* 기간 : 2013년 03월 11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학교병원의 새 얼굴

전임교원

고려대학교병원에 뛰어난 의료진이 찾아옵니다. 3월부터 새롭게 임용된 전임교원 6명이 각 전문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진료를 담당합니다. 또한 안산병원에서 뛰어난 의술을 펼치던 위장관외과 박성흠 교수와 치과 류재준 교수 역시 이곳에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전임교원은 수많은 유능한 의료진들 중에서도 최고의 의료술기를 인정받은 재원들입니다. 앞으로 고려대학교병원을 책임질 전임교원을 소개합니다.



[박성흠 교수]
위장관외과
위암, 상부위장관



[류재준 교수]
치과
보철과



[김승태 교수]
중양혈액내과
고형암의 항암화학치료



[유영동 교수]
간담체외과
간질환, 담도, 췌장질환



[이대희 교수]
정형외과
무릎, 스포츠의학, 슬관절 관절경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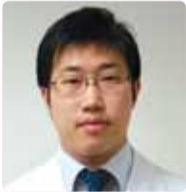
[강성구 교수]
비뇨기과
내 비뇨기과학, 종양학, 일반 비뇨기질환

임상교원

임상교원 34명이 각 전문분야에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아래 임상교원들은, 오랫동안 의학공부에 매진하여 실력을 키워 당당히 고려대학교병원에 교수가 된 우수한 의료진입니다. 추후 신입교원들이 보여줄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며, 신입교원을 소개합니다.



[김승한 교수]
소화기내과
위장관 질환



[이재민 교수]
소화기내과
위장관 질환, 위식도역류, 소화성궤양



[이종수 교수]
소화기내과
위식도역류, 대장질환, 위십이지장궤양



[남승주 교수]
소화기내과
소화기질환, 소화기계 감염



[심재민 교수]
순환기내과
부정맥, 심박동기, 실신



[주형준 교수]
순환기내과
심장질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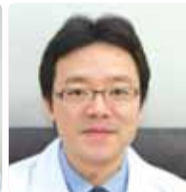
[김선화 교수]
내분비내과
내분비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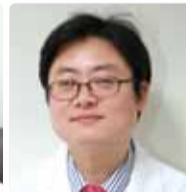
[김정선 교수]
중양혈액내과
혈액암, 골수이식, 혈액질환



[최윤지 교수]
중양혈액내과
고형암의 항암화학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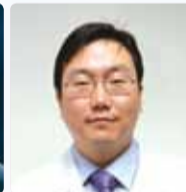
[정승필 교수]
유방내분비외과
유방질환, 갑상선질환



[강승우 교수]
정형외과
수부외과, 미세재건외과, 수부외상, 말초신경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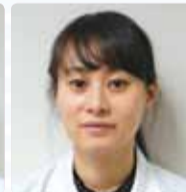
[이도열 교수]
신경외과
척추질환, 두부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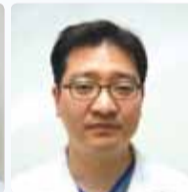
[김희중 교수]
흉부외과
심장(관상동맥, 판막), 대동맥질환, 혈관외과학



[윤원영 교수]
성형외과
안면재건성형, 수부외상, 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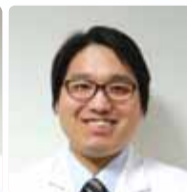
[강민정 교수]
산부인과
일반산부인과, 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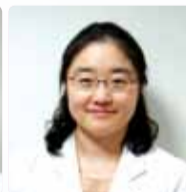
[장항영 교수]
산부인과
일반산부인과, 부인과질환, 생식내분비질환



[백준우 교수]
소아청소년과
소아 내분비, 일반소아과



[이윤 교수]
소아청소년과
소아 소화기영양, 소아 내시경



[변정혜 교수]
소아청소년과
소아신경질환, 소아신경생리



[원은수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일반 정신의학



[유화정 교수]
피부과
레이저, 피부미용, 필러, 보톡스



[조석 교수]
비뇨기과
일반 비뇨기질환



[임현주 교수]
영상의학과
흉부영상의학



[황성호 교수]
영상의학과
심장 및 흉부 영상의학



[박순찬 교수]
영상의학과
신경혈관 중재시술, 신경두경부영상의학



[박은경 교수]
영상의학과
유방영상의학



[강우영 교수]
영상의학과
근골격영상의학



[이남권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종양학



[어재선 교수]
핵의학과
종양핵의학, 분자영상, 방사선핵종치료



[박수영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요통, 하지통, 신경통, 관절통, 암성통증



[이한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통증



[문현임 교수]
재활의학과
림프부종, 척수 손상, 재활의학과 일반질환



[박시영 교수]
가정의학과
비만, 대사증후군, 골다공증, 예방접종



[고선영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분자유전, 진단면역, 진단혈액

박철 귀성형연구센터 교수

[파이낸셜뉴스 2월 28일 게재]



귀성형연구센터 박철 교수(성형외과)는 그동안 귀성형술만 6500건 이상 집

도한 귀성형 전문 의사다.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로는 처음으로 성형외과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학술잡지인 '미국성형외과의사학회지'의 한국 대표 국제 부편집장으로 선임됐다. 이 학회지는 성형외과 분야에서는 인용지수가 높은(3.382) 영향력 있는 학술지다. 그는 미국성형외과의사학회지에 지난 1988년부터 2012년까지 귀 관련 논문 30여건을

을 실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박 교수에게 귀성형에 대해 들어봤다.

◇ 어떤 사람이 귀성형을 하고, 주로 어떤 모양인가.

주로 선천적으로 귀가 이상한 모양을 한 사람들이다. 1만명 중 1명 정도가 귀가 거의 없는 소이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당나귀귀 등 귀 이상 환자들은 그보다 더 많다. 소이증은 바깥으로 나타난 귀가 아예 없거나 귓볼의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소이증보다 낫지만 귀 모양이 이상한 경우에도 수술을 하는데 팔랑귀처럼 앞으로 나와있는 당나귀귀, 귀 윗부분이 피부에 파묻혀있는 매몰귀, 조개껍질과 비슷한 조개귀, 찌름귀 등이 있다. 보통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 한 쪽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 소이증이 가장 심한 경우인가.

소이증은 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쪽 가슴 가운데 밑 부분에 있는 연골을 떼어내 귀의 연골을 만들어줘야 한다. 문제는 수술하는 시기가 너무 어리면 연골이 별로 없어 나중에 가슴 부분의 연골이 자라나지 않고 연골 자체도 약해 귀 모양을 만들어도 연골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통 12~13세 이후에 수술을 하게 된다. 귀 연골의 성장도 끝나고 연골의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반면 나이가 20세 이상 넘어가면 가슴 연골이 너무 딱딱해져 귀 모양을 만들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수술을 하려

고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또 소이증 환자는 귀 자체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3번에 걸쳐 수술을 하게 된다. 처음 수술은 6시간, 이후에는 3시간, 2시간이 걸린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 하게 된다.

◇ 다른 수술은 어떤가.

귀 모양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주변의 피부를 떼어내 만들거나 주변 피부조직을 늘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한 번으로 교정이 가능하다.


◇ 귀 이상 환자들은 청력에는 이상이 없다.

귀는 내이, 중이, 가장 바깥쪽인 외이로 나뉜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만들어질 때 내이와 중이, 외이가 만들어지는 게 다르다. 따라서 외이에 이상이 있으면 중이까지 영향을 미친다. 달팽이관과 신경조직이 있는 내이는 정상이지만 고막 등이 있는 중이는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력이 50%가량 떨어진다. 하지만 보통 한쪽 귀만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 50%에다 이상 귀의 25% 청력이라면 듣는 데는 지장이 없다. 만약 청력 수술을 하면 중이 쪽에 귀의 조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귀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

◇ 수술 후 관리법은.

보통 가슴에서 연골을 떼어내 귀 연골을 만들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해줘야 한다. 딱딱한 곳에 옆으로 누워 귀를 누른다는가 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요즘은 성형외과도 눈, 코 등 한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80년대 중반만 해도 귀성형만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1989년부터 귀성형에 대한 해부학 논문을 SCI급 저널에 게재하면서 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게 됐다. 요즘에는 의사들이 논문을 많이 쓰지만 당시만 해도 SCI 저널에 논문을 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논문을 쓰려면 수술 건수도 많아야 하고 연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 이를 토대로 여러가지 귀성형 방법도 개발하게 됐다. 

글 | 파이낸셜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2 최우수교원 선정, 국내 부정맥 치료 선도, 순환기내과 김영훈 교수

[인터뷰]



진료, 연구, 교육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 2012년 전체의 최우수교원으로 선정된 김영훈 교수, 그는 부정맥 분야의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의로 인정받는 교수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정맥 치료를 위한 선도적인 연구와 시술로 고려대학교병원을 국내 부정맥 치료의 실질적인 메카의 반열에 올려놓은 업적은 대내외 많은 의료진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순환기내과 김영훈 교수에 대해 알아본다.

◇ 미개척분야 부정맥 치료에 매진

고대병원에서 부정맥 진료를 담당하던 김영훈 교수는 1996년 미국 LA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의 세다스 사이나스병원 부정맥연구소에서 연수를 받으며, 부정맥 연구에 더욱 매진하게 됐으며,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심장학회와 미국심장협회의 '젊은 연구자상'을 연거푸 수상했다.

◇ 국내 최초 부정맥 집중치료 및 전극도자절제술 실시


한국에 돌아와서는 심장학 분야 중 미개척분야였던 부정맥의 선택과 집중 치료를 위해 국내 최초로 부정맥센터를 개소했으며, 98년에 국내 최초로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을 시

행했다. 또한, 부정맥 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의료진의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정맥 모니터링, 유전자 색출진단 및 치료 등 부정맥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매진했다.

해외 선진국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공동 임상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극도자절제술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법과 개개 환자의 부정맥 기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환자 맞춤형 기법의 개발을 위해 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심장 외벽-내벽 하이브리드 접근법, 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 수술의 응용, 심장 정맥에 선택적으로 고농도 알코올 주입을 통한 부정맥 절제 및 심방세동의 원인인 혈전을 막기 위해 좌심방의 일부에 우산모양의 장치를 씌워 혈전 생성을 막는 시술등 부정맥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그의 연구는 경계가 없다.

◇ 세계적 권위의 학회통해 독창적 시술법 전수

진료 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10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 하버드대를 비롯해 해외 우수대학 및 다국적기업 연구소와 학문적 파트너가 되어 공동연구 및 교육을 진행했으며, 미국 심장학회 등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학회에 단골로 초청되어 강의 및 시술생중계를 통해 세계 의사들을 대상으로 독창적인 김 교수만의 시술법을 전수하고 있다.

김영훈 교수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부정맥환자의 완치를 위해 365일 밤낮으로 함께 해준 의료진 및 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서방 선진국에 버금가는 치료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카테타 개발부터 기초 연구까지 열악한 국내 부정맥 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방암이 앓아간 자신감 되살릴 수 있다!, 유방 재건술

[동아일보 2월 25일 게재]



국내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여성 유방암백서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는 1996년에 비해 2010년 4배 정도 늘었다. 2011년 현재 여성 25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이 중 30대가 14.3%, 40대가 40%를 차지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젊은 환자의 비중이 큰 편이다.

유방은 여성과 모성을 상징한다. 특히 젊은 여성이 유방을 절제한다면 그 심리적 충격은 남성의 거세에 비교될 정도라고 한다. 한쪽 유방이 없으면 신체적 불균형으로 인해 척추가 비뚤어지기 쉽다. 자세를 잡거나 옷을 입을 데도 어려움이 있다. 보형물이 담긴 브래지어는 위치가 쉽게 변하고 수시로 땀이 차 불편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방 제거 뒤, 또는 동시에 유방을 재건해 주는 수술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지고 있다.

유방재건술은 크게 실리콘 주머니로 된 보형물을 넣는 방법과 자신의 조직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보형물 삽입은 수술 자체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형물 주위의 조직이 딱딱해지거나 터질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촉감이 자신의 조직을 이식하는 것보다 떨어진다.

자신의 조직을 이식할 때는 주로 등이나 배의 조직을 사용한다. 특히 튀어나온 아랫배의 피부와 지방을 가슴으로 옮겨 유방을 만들면 보형물이나 등 조직에 비해 촉감이 더 자연스럽고 상당히 큰 유방도 재건할 수 있다. 아랫배도 날씬해지니 일거양득의 효과도 있다. 물론 아랫배의 지방을 이식한다고 해도 임신과 분만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유두도 고스란히 되살릴 수 있다. 주위 피부를 모아 만들기도 하고 정상인 다른 편 유두가 클 경우 일부를 잘라 이식하기도 한다. 거무스레한 유륜 부위는 피부색이 비슷한 생식기 주변의 조직을 이식하거나 문신으로 색을 넣어준다.

유방재건술을 받으면 보통 1주일에서 10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 2주 정도면 부기가 가라앉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가슴 모양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6개월~1년 정도 걸린다.

수술 뒤에 방사선 및 항암 치료를 받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유방을 재건했다고 해서 암이 더 쉽게 재발하는 것도 아니고 재발한다고 해도 발견이 늦어지는 것도 아니다.

물론 젖شم 등 유방 조직을 되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방의 모양만 갖출 뿐 수유 같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체의 불균형을 없애는 것은 물론 심리적 상실감도 채워주기 때문에 유방재건술은 젊은 유방암 환자 사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치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절제와 동시에 재건 수술을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이때 유방외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가 함께 들어가 수술에 참여하니 유방의 모습을 예쁘게 만들 수 있고 수술 흉터도 작게 남는다.

실제로 2012년 서울소재 모 병원에서는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 691명 중 40%에 이르는 273명은 유방재건술을 함께 받았다. 2003년 114명만이 두 수술을 동시에 받은 것에 비하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고가의 수술비용이다. 유방암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방재건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유방재건술은 약 1500만~2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최근까지만 해도 미용성형으로 분류돼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됐지만 이 수술을 유방암 치료의 연장으로 인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공포,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

글 | 동아일보 이지은 기자
도움말 | 성형외과 윤을식 교수

피로·권태감 집중력 저하, 봄철 춘곤증 아닐 수 있다. 만성피로증후군

[기획특집 1]



성북구에 사는 회사원 박치완(40)씨는 최근 부쩍 기운이 없어져서 병원을 찾았고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당황스러운 결과를 겪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잦은 야근과, 과도한 업무 때문에 잠이 부족해

서 일어나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마무리됐고, 야근 또한 줄어들게 되어 숙면을 취했지만 피로는 풀리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단순한 수면부족이라고 말하며 별다른 처방을 받지 못했다.

날로 심해진 피로와 함께 식은땀, 두통과 함께 회사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은 심해졌다. 찾았던 병의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기를 권했고, 병원에서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비롯해 간 기능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류마티스 질환 등 각종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별다른 병증을 찾지 못한 박치완씨는,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만성피로증후군이란 병명을 의심해 가정의학과를 방문했고, 인지행동치료와 함께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회복을 하고 있다. 심한 무기력증과 함께 전신 통증까지 동반되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던 시간을 생각하니 새삼 무섭기까지 하다.

◇ 춘곤증 및 기타 만성 피로와 비슷해 자가 진단 및 치료 어려움

만성피로증후군은 봄에 일어나는 춘곤증과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다. 나른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충분한 숙면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오후의 졸음 등 춘곤증과 증상이 비슷하다. 때문에 이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처음에 일시적인 증상이라 치부하며 한약이

나 피로회복제를 먹는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는 피로함이 다른 증상과 동반된 이후에 병원을 찾고 검사를 한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정신질환, 내분비 및 대사 질환, 감염질환, 심장 및 폐 질환, 수면장애 및 기타 원인 불명의 질환 등으로 인해 만성 피로가 유발되는 경우와도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다.

◇ 심한 피로함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만성피로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은 6개월 이상의 만성피로와 함께 여러 가지 병증이 나타나는데 1)기억력, 집중력 장애 2)인후통 3) 목, 겨드랑이 통증 4)근육통 5) 다발성 관절통 6) 두통 7)수면으로 회복되지 않는 피로 8)힘든 운동, 노동 후 심하게 나타나는 피로, 권태감 등의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만성피로증후군이라 진단 한다. 이외에도 환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화불량, 수족냉증, 두통, 수면장애, 우울감, 식은땀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다양한 다른 만성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우선 다른 질환이 있는지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며 그러한 기질적 질환이 없는 경우 만성피로증후군이라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고려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는 “만성피로증후군은 피곤에 찌든 현대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일시적 피로와는 다르게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며 “숨어있는 질병이 없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진단 기준이 복잡한 것처럼 환자의 증상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따뜻한 봄철 나타나는 피로증상이 춘곤증이나 단순한 수면부족이라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철저함이 필요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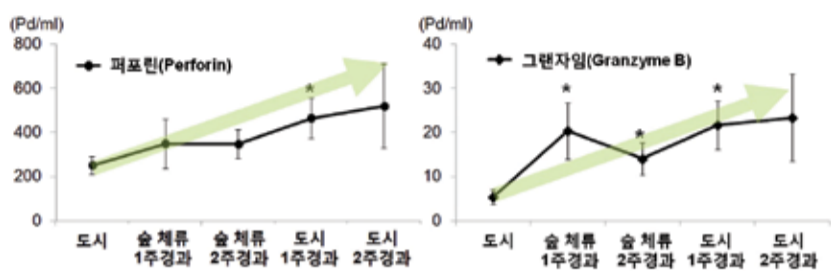
도움말 |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

산림치유, 삶의 질 향상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

[기획특집 2]

통합의학센터 이성재 교수팀, 유방암 환자 대상 4주간 조사

면역세포 활성 단백질 분비능 변화



산림치유가 삶의 질 향상과 면역력의 증가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합의학센터 이성재 교수팀이 유방암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숲에서 생활하며 삶의 질, 면역력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과 공동 실시된 이번 연구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산림치유과정 2주를 체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상생활(도시)로 돌아온 후 2주를 추적 관찰을 포함해 총 4주간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다.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산림치유가 면역력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번 연구가 처음이었다.

이번 연구는 총 5회의 채혈과 2회의 설문지 검사를 통해 진행됐다. 그 결과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 수가 319에서 445이상으로 126이상 증가하였고, 또한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만났을 때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분비하는 단

백질인 퍼포린(Perforin)과 그랜자임(Granzyme B)의 농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모두가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삶의 질 척도에서도 전체지수가(WHOQOL Total) 66.06에서 78.44로 숲 치료 이후 12.38 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2주간의 숲 체험에서 도시로 돌아온 후 2주간의 추적관찰에서도 그 수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산림치유가 유방암 환자의 면역력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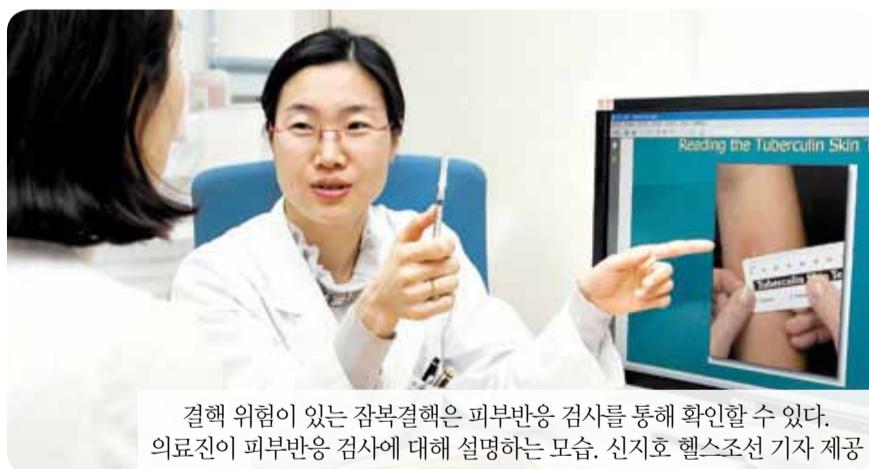
이번 연구는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분비되는 단백질과 NK세포가 도시에 돌아왔어도 최대 2주까지 증가한 상태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산림 치유가 어떤 효과가 있고, 또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미 해외에서는 산림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환자의 치유, 재활, 휴양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 등 유럽 등지와 일본에서 발달해있는 건강증진 수단이다. 독일에서는 천식, 아토피, 고혈압, 암 생존자 등 다양한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관리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산림, 해안지역 같은 휴양지 클리닉에서 휴양하며 치료받는 것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성재 교수는 이 연구에 대해 "유방암 생존자들이 2주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면역력이 증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던 산림치유의 효과에 대해 더 많은 과학적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발견이 암 환자뿐 아니라 산림치유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결핵, 증상 없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조선일보 2월 27일 게재]



결핵 위험이 있는 잠복결핵은 피부반응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이 피부반응 검사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제공

직장인 윤모(32)씨는 얼마 전 결핵 진단을 받았다. 결핵전문 간호사는 "같이 사는 가족도 감염 위험이 있으니, 병원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라"고 권했다. 윤씨의 어머니는 흉부 X-레이, 피부반응검사 등을 받았다. X-레이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피부반응 검사에서 이상 판정이 나와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받고 현재 결핵균을 없애는 약을 먹고 있다.

◇전 국민의 30%, 결핵균 감염 상태

윤씨 어머니처럼 증상(2주 이상 기침·가래, 체중 감소 등)이 없고 흉부 X-레이 검사는 정상이지만, 피부반응검사서 이상(피부에 결핵균을 소량 주입한 뒤 부기의 크기가 10mm 이상일 때)이 있으면 '잠복결핵 감염'이라고 한다. 공기 중의 침방울을 통해 결핵균에 감염되면 5~10% 정도만 결핵에 걸린다. 나머지는 몸 속에 균만 잠복해있는 잠복결핵 감

염 상태가 된다.

보건당국의 전국민 표본추출 검사 결과 1957년에는 72%, 1965년에는 69%, 1990년에는 59%가 결핵균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조은희 연구관은 "그 이후로 전국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현재 잠복결핵에 감염된 사람이 전 국민의 30%는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잠복결핵 감염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져 50대는 50%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뇨병 환자, 치료받는 게 좋아

과거에는 잠복결핵 감염 상태라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추세이다.

고대안암병원 호흡기내과 이은주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인 '결핵 후진국'이다"라며 "결핵 발병 고위험군을 가려내 예방적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1년부터 결핵 확진을 받은 환자와 오래 접촉한 가족, 동료, 친구 등에게 무료로 흉부 X-레이, 객담검사, 피부반응검사 등을 해주고 있다. 당뇨병·만성 콩팥병·류마티스 질환자, 장기 이식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 장기간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고 있는 사람도 결핵 검사 후 잠복결핵 감염 상태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은주 교수는 "이들의 경우는 결핵에 걸릴 위험이 높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수십 배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잠복결핵 감염자로 진단을 받으면 '이소니아지드', '리팜핀'과 같은 약을 3~9개월간 복용해야 한다.

글 | 조선일보 이금숙 기자

국제임상시험의 핵심이슈 관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기획특집 3]



고려대학교병원(원장 박승하)은 지난 3월 8일(금) 오후 2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Key Issues in Global Clinical Trials]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국제임상시험의 핵심이슈' 라는 주제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박승하 원장, 최재걸 연구부원장, 김경수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부단장, 김호중 대한임상시험센터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하여 약 100여명의 임상시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심포지움은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김경수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부단장이 좌장으로 미시간대학의 Rodica Pop-Busui 교수의 'Progress and Controversies in Diabetes: Lessons from Global Clinical Trials in Diabetes' 에 대한 발표에 이어 고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정 교수의 '정신과 약물의 약물유전학과 임상시험에 대한 발표가

계속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호중 대한임상시험센터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박영석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장의 '글로벌 임상시험의 접근법' 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인디애나대학의 Keith L.March의 'Experience from Stem Cell Clinical Trials'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고대병원 임상시험센터장이자, 연구부원장인 최재걸 교수를 좌장으로 고대병원 순환기내과 홍순준 교수의 'Understanding Global Clinical Trials' 에 이어, 고대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의 'Collaboration for Clinical Trials-Case Study' 에 대한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최재걸 연구부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심포지움은 국제임상시험의 제2도약에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 이라며 "국제적 임상시험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계신 모든 연구자분들과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 고 말했다.

박승하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 국제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접근사례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경험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심포지움의 의미를 밝혔다. 

소화기내과 이홍식 교수, ERCP Live 2013 행사에서 췌담도 시술법 선보여

[기획특집 4]




소화기내과 이홍식 교수가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고려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에서 'ERCP Live 2013' 행사의 ERCP(내시경 췌담도 조영술)의 생중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췌담도학회에서 주관했으며 이번 'ERCP Live' 에서는 한국선진연구 네트워크 'KOREN' (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를 이용하여 국내 7개 병원과 홍콩, 태국, 인도의 3개 병원을 연결하는 국제 ERCP 생방송 심포지움(International ERCP Live

Symposium)을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총 4가지의 세션 중 첫 세션을 이홍식 교수가 안산병원 현종진 교수와 함께 진행하였다.

ERCP는 췌·담도 질환의 진단 뿐 아니라 치료에도 중요한 술기로서, 담석제거, 췌장암, 담도암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ERCP명의로 손꼽히는 이홍식 교수는 이번 'ERCP Live' 에서 담도암 환자에게서 담도폐쇄를 내시경적으로 치료하는 시술을 선보였으며, 췌담도 관련 전문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한췌담도학회는 1990년 'ERCP연구회' 의 결성을 시작으로 1995년 3월 '대한췌담도 연구회' 창립으로 이어졌으며, 2011년 3월 대한의학회 정식회원학회로 인준되는 등,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많은 업적을 이루어 냈다. 그동안 대한췌담도학회에서 감사와 총무이사를 역임하는 등 많은 공헌을 한 이홍식 교수는 이번 'ERCP Live' 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비인후과 정광윤 교수, 대한두경부외과학회장 취임

[기획특집 5]




이비인후과 정광윤 교수가 대한두경부외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Head and Neck Surgery, KSHNS) 제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정광윤 교수는 두경부 질환에 대한 학문적 열정과 끊임없는 관심을 바탕으로 두경부질환을 정확히 알리는데 힘써왔으며, 더불어 관련 학회 이사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을 인정받아 이번에 학회장에 취임하게 됐다.

특히, 정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고대 의과대학,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등과 함께 외과, 내분비내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임상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갑상선 연수회' 를 개최했으며, 두경부 질환의 일종인 갑상선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여러 임상과를 넘나드는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광윤 교수는 이번 취임과 관련해 "대한두경부외과학회의 당면과제는 동일한 질환(두경부암이나 관련질환 또한 갑상선수술)에 대해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흉부외과나 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하는 것이고, 향후 갑상선학회나 비분비외과학회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자로서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며, "내부적으로는 두경부수술에 대한 교과서의 발간, 세부분과전문이제도 준비, 학술지 발간을 실행하려 한다. 학회의 모든 움직임은 학문적인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두경부암이나 갑상선암의 예방과 완치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광윤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대한두경부종양학회 수련이사, 대한음성언어학회 감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장 임기는 올해 3월부터 2년간이다. 

음악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네 번째 이야기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2월 14일(목) 오후 5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생명나눔 네 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장기이식인의 날 음악회를 개최했다.

장기이식센터(센터장 김동식, 간담체외과)의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음악회에는 장기기증자와 가족들, 장기 수혜자와 가족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특히 화상환자를 후원하는 베스트안화상후원재단 설수진대표가 참여해 음악회에 의미를 더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음악회에 앞서 수혜자들의 소감이 발표됐다. 신장기증을 받은 한모씨는 "계게 새 삶을 선물해주신 장기 기증자분과 고려대학교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어렵게 받은 새 생명, 앞으로 소중히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수혜자들의 소감발표 이후에는 '조이양상블'의 다채로운 연주회가 진행됐다. ▲나비아청산가자 ▲블러섬 ▲사랑가 ▲가야금독주-한오백년 ▲남도아리랑 ▲거문고산조 ▲봄이오면 ▲비틀즈메들리 ▲악기소개 ▲아리랑 등 귀에 익숙한 국악을 연주하며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

박승하 병원장, 성북구의사회 정기총회서 감사패 수상



박승하 원장이 지난 2월 26일(화)에 있었던 '제53차 성북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성북구의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고려대학교병원은 성북구의사회에서 주최하는 4개구(성북, 강북, 노원, 도봉) 합동 연수교육을 4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6년째 주관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8월 심폐소생술과 응급치료가이드라인 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북구의사회의 발전 및 지역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환자의 안전, 공유해야 더욱 능률이 오릅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2월 15일(금) 대회의실에서 '제2회 환자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총 3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각자 준비한 환자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사항을 발표하며 서로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환자의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리로서 ▲ 환자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사항 발표 ▲ 환전안전송 Festival ▲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으며, 특히 안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위험관리라는 주제로 존스홉킨스대 정현재 교수가 특강을 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환자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사항 발표회 부문에 3팀, 환전안전송 Festival 부문에 13팀 등이 참여했다. 환자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사항 발표회 부문에서는 ▲ 조영제 투여, CT 검사 프로세스 개선(신장내과 이재원 교수) ▲ NEARMISS 사례를 통한 투약 오류 감소활동(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조은혜) ▲ 자살의도를 가지고 산책장소를 이탈한 사건(81병동)이 우수상에 선정되었고, 환전안전송 Festival 부문에서는 ▲ 시설팀이 대상, ▲ 55병동&무균병동이 최우수상을, ▲ 57병동과 약제팀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박승하 병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 2회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축하드립니다"며 "앞으로 환자의 안전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

환자안전,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제2회 안전지킴이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안전지킴이 51명과 환자안전지킴이 68명 등 총 119명을 임명하고, 병원내 환자안전과 관련된 4시간가량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환자의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리로서 ▲ 환자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사항 발표 ▲ 환전안전송 Festival ▲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으며, 특히 안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위험관리라는 주제로 존스홉킨스대 정현재 교수가 특강을 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정확한 진료는 기본, 고객에게 주는 웃음은 덤이죠!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2월 오전 본부회의실에서 친절직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이번 친절직원에는 소화기내과 김은선 교수, 안과 나건후 전공의, 61병동 최수정 간호사, 내분비내과 윤수아 간호조무사가 각각 선정됐다. 친절직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

2012년 임상간호연구 논문발표회 성료!



전문간호시대를 표방하며 간호사의 복지, 교육, 사회공헌 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간호부(부장 이은숙)가 수준높은 연구논문으로 다시 한번 눈길을 끌었다.

간호부는 2월 27일 오후 3시 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의학관에서 '2012 임상간호연구 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발표회는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연구의식을 고취시켜 전문 간호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호부 주관으로 해마다 마련되고 있다.

올해에는 최우수상을 차지한 83병동의 '전화추후관리 프로그램이 외파된 복용환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가관리정도에 미치는 효과' 등 총 6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 간호사회 학술상 및 한미음 장학생으로 선정된 우수 학위논문 발표와 ICU와 일반병동의 간호모범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

병원내의 범죄, 일어날 틈이 없죠!



고려대학교병원은 2월 25일 본부회의실에서 물품 도난 용의자를 검거한 안전요원실 근무자와 신고자를 표창했다.

이번 도난 사건은 ▲2012년 10월 18일 06시49분경 소아청소년과 내 진료방에서 다량의 상품권을 훔쳐간 경력이 있는 용의자를 ▲2013년 1월 21일 06시 39분경에 미화부 김형순 직원이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견함으로 시작됐다.

당시 미화부 김형순 직원은 소아청소년과 부근에서 용의자를 수상쩍게 생각하였고 안전요원실에 신고했다. 범죄현장에서 범인을 잡아야 했기에 신고를 받은 안전요원실 오창환, 박두진, 고광석, 강원진 근무자는 신속하게 움직였고, 물품을 훔치던 용의자는 신고를 받은 후 10분도 채 안되어 출동한 근무자에게 목격되어 지구대로 인계되었다.

이러한 사연을 듣게 된 병원 관계자들은 신고자, 근무자 모두에게 표창을 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고, 표창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품권이 전달될 수 있었다. 📖

고려대학교병원 진료시간표

* 선택진료 의사 | 대표번호·전화예약 1577-0083 | 인터넷 예약 http://anam.kumc.or.kr | 응급의료센터 02)920-5373 2013년 3월 16일 현재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소화기센터 3층 ☎6551	류호상	화,목	화,목	간질환,위장관질환	성형외과 3층 ☎5440	박철안	월,금	수	귀성형, 손저림증, 화학박피		
	김창덕	수,금	월,목	담석, 담도암, 췌장암, 췌장염		박승하	수	수	소아기형, 안면마비, 레이저박피, 턱성형		
	엄순호	월,수,금	수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이병일	월,수	월,수	미용성형, 유방성형재건, 안면외상재건, 미세수술		
	전홍재	화,목,금	금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윤을식	화,목	화,목	유방재건, 지방성형, 수부재건, 눈, 코, 주름성형, 레이저		
	이홍식	월,화,목	화	담석, 담도암, 췌장암, 췌장염, 위장관질환		윤원영	화,목	화,목	안면재건, 수부외상, 화상, 흉터성형, 피부미용성형, 레이저		
	진윤태	수,금	화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일반의	월,수,금	월-금	외상		
	서영석	월,목	월,금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소아청소년과 3층 ☎5650	손창성	화,수	금	소아심장질환, 신생아	
	김보라	월	수,목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박상희	화,금	수	청소년질환, 소아 소화기	
	김은선	수	월,금	위장관질환			정지태	화,금	월,화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	
	정진영	화,수	화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이광철	월,목	목	소아혈액종양, 혈액질환	
임선영	토	수	간질환(토오전:2주)	이기형	월,토		월,수,목	소아내분비질환(갑상선, 비만, 성조숙증, 저신장)(목:오후:1,2,3주)[토:오전:4주]			
			위장관질환	이은희	월,토		화	소아소화기질환(토오전:3주)			
				변정혜	목,금,토		월	미숙아, 고위험신생아, 신생아질환(토오전:3주)			
				백준우	수,토		월	소아신경과질환(토오전:4주)			
				일반의	화,목		화,목	소아내분비질환, 일반소아과[토오전:2,5주]			
								예방접종(오전10:30~11:30/오후14:30~15:30)			
내과 3층 ☎5410	김형규	월,금	화	고혈압, 신장질환	소아클리닉	손창성	월,수,목	수	소아심장초음파(심장초음파실)		
	조원용	수,금	월,수	고혈압, 신장질환		임은	수	오후:2,4주	소아신장질환		
	조상경	목	수,목	고혈압, 신장질환		유방, 내분비외과 (유방센터) 2층 ☎6670	배정원	월,목	화	유방암 및 갑상선암/유방암클리닉(목:오전, 유방양성형클리닉(화:오후))	
	김명규	월	화,금	고혈압, 신장질환			김훈업	수	월,목	갑상선암 및 부갑상선 질환, 부신종양/로봇갑상선수술클리닉(수:오전)	
	이재은	화	금	고혈압, 신장질환			정승필	화,금	수	유방 및 갑상선 질환	
	조은성	월,목	월,목	고혈압, 신장질환			이혜운	분만휴가: 2013년 4월		유방 및 갑상선 질환	
	김민자	수,금	월,목	갑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안과 2층 ☎5520	조윤애	월,목	월,목	사시클리닉, 약시
	손장욱	월,목	화	갑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김효명	화,목	월,목	백내장클리닉, 각막클리닉, 근시교정(라식)클리닉
	윤영경	화	수,금	갑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오재영	월	월,수	망막 클리닉, 유리체(수:오후-레이저)환자만
	박응용	목		반월, 자반증(영)클리닉				유정권	금	화,수	녹내장클리닉, 백내장(수:오전-초진환자만)
김정선	금		반월, 자반증(영)클리닉	서영우	화,수			목	사시, 약시, 안성형		
지종대	목,금	월,수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강민우	목,금			화	백내장, 각막, 근시교정		
이영호	월,화,수	월,목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일반의	화,수,금	화,수,금		안과 일반화			
내과 일반의	월,금	월,금	내과질환	가정의학과 2층 ☎5104	조경환	월,수,금		수	노인학, 골다공증, 만성질환, 호스피스		
최동섭	화,목,금	목	내분비		고병준	화,수		수,금	골다공증, 노인학, 건강증진, 금연		
김신근	월,수	월,수	내분비		김양현	목		화,목	비만, 건강증진, 해외진료, 건강상담		
김희영	화,수	월,수	내분비		한병덕	월,화,금	월	금연, 비만, 건강증진			
김윤정	월,목	금	내분비		일반의	월-금	월-금	신체검사, 건강상담, 성인예방접종			
김남준	금	화,목	내분비		이민수	월,수,금	수	우울증, 치매, 조현병			
김선화	월,금	월,금	내분비		김주린	[보직:휴진]		수면장애, 적응장애, 조현병			
김열홍	월,목	월,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한병주	월,목	월,목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신상원	수,목,금	화	두경부암, 폐암, 호스피스		이현정	화,수,목	화	조울증, 수면장애, 조현병			
김병수	화,금	화,목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원은수	화,토	월,금	일반정신의학[토오전:2,4주]			
박경화	월	화,목	유방암, 부인암, 비뇨기암	일반의	월-목,토	월,수,금	일반정신의학[토오전:매주]				
박용택	월	화,목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신경과 2층 ☎5510	박건우	화,목	화,목	신경변성질환 임상시험 클리닉(화,목:오전 9-11시)			
김승태	수,목	수	고형암의 항암화학치료		김병조	월,수	화,수	다발성경화증, 말초신경질환, 척추, 근육질환(화:오후:초진진료)			
최윤지	금	월	고형암의 항암화학치료		정기우	수,목	월,목	간질(뇌진전), 수면장애, 두통, (목:오후:수면장애)			
김정선	화,수	화,수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골수이식, 혈액질환		유성욱	토	월,금	뇌졸중, 뇌혈관질환(금:오전 2,4주)			
김해숙	화,금	화,금	고형암의 항암화학치료		조경희	월,화,금	수,금	뇌졸중, 어지럼증, 두통(금:오전:1,3주)			
김철웅	화,목,금	월,목	폐암, 소화기암, 두경부암, 유방암		이찬남	수,금	화,목,금	파킨슨병, 운동장애, 치매, 기억장애(금:오후:초진 2,4주)			
이남권	월,화,수,금	화,수,금	뇌종양, 부인암, 비뇨기암, 폐암, 림프종, 소아종양, 육종		김선행	목	수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여성내분비			
일반의	화,금	화,금	종양학		김탁	월	화,금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골반경수술, 자궁근종, 난소육			
소아청소년과			소아혈액종양		홍순철	월,목	화	산과, 임신중독증, 고위험임신클리닉			
정형외과	박중훈	수	종양		송재윤	화,금	월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Colpo시술, 로봇수술			
심혈관센터 4층 ☎6700	심원주	월,목	화,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수요일은 초진만)	박현태	화	수,목	불임(체외수정), 폐경기질환, 부인과내시경 수술			
	김영훈	화,금	월,금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배소숙	수,금	수,목	부인암, 종양생식보존(암환자정량, 난자, 난소동결&이식)			
	임도훈	월,화,목	월	심혈관중재시술(화요일은 초진만)	장향웅	수,금	월	일반산부인과, 부인암, 자궁탈출			
	박상원	수,목	월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수요일은 초진만)	강민정	토	월	산과			
	홍순준	목	화,목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중재시술(금요일 오후는 초진만)	일반의	월,화,목	화-금	일반산부인과			
	박성미	화,금,토	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토요일 초진만 1,3주)	산부인과 2층 ☎5450	김선행	목	수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여성내분비		
	최홍일	해외연수: 2015년 2월까지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심장성근사, 실신		김탁	월	화,금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골반경수술, 자궁근종, 난소육		
	안철민	월,목,토	목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대동맥, 경동맥, 말초혈관(토요일 초진만 1-4주)		홍순철	월,목	화	산과, 임신중독증, 고위험임신클리닉		
	박재형	수	월,수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송재윤	화,금	월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Colpo시술, 로봇수술		
	김재민	월,금	월,수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실신, 급사		박현태	화	수,목	불임(체외수정), 폐경기질환, 부인과내시경 수술		
심미나	수	금	심장질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배소숙		수,금	수,목	부인암, 종양생식보존(암환자정량, 난자, 난소동결&이식)			
김대인	화	금	심장질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장향웅		수,금	월	일반산부인과, 부인암, 자궁탈출			
김수아	화	목	심장질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강민정		토	월	산과			
특수클리닉				일반의		월,화,목	화-금	일반산부인과			
				산부인과클리닉		김선행(월-금 오전,수 오후,목 오전), 김탁(월 오전,화 오후), 홍순철(월 오전), 송재윤(화 오전,금 오전), 박현태(월-금 오후,수 중일,목 오후), 이상훈(화 오전,목,금 오후)					
호흡기내과 ☎5111	인광호	월,수,목	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피부과 2층 ☎5470	계영철	월,화,목,금	수,목,금	건선, 탈모, 아토피, 레이저		
	이상엽	월,화	화,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안효현	수,토	수,목,금	아토피, 백반증, 레이저(토오전:2주)		
	이은주	월,목	금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서수홍	수,토	월,화	피부암, 백반증, 레이저, 피부과레이저클리닉:화 오전		
	박지영	화,금	화,금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최재은	수,토	월,화	여드름, 아토피, 레이저(토오전:4주), 피부과레이저클리닉:수 오전		
흉부외과 ☎5436	김광택	화,목	수	폐, 기관지, 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일반의	토	월,금	일반피부과학[토오전:5주]			
	이성호		화,목	심장, 혈관외과, 인공심장	비뇨기과 2층 ☎5530	김제중	수,금	수	남성과학, 불임, 전립선비대증		
	이성호		화,목	흉곽기형, 폐, 식도질환, 하지정맥류		이정준	월,목	월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 레이저수술		
	손호성	월,금	월,금	심장(관상동맥, 판막), 혈관질환, 심장이식		천석호	화	화,목	종양학, 전립선암(로봇-복강경수술)		
김희중	월,금	수	심장 혈관질환 일반흉부	장훈아		수	금	내 비뇨기과학, 일반 비뇨기과학, 종양학			
위장관 3층 ☎5401	김종석	수	월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치과 2층 ☎5423	권희규	월,수,금	화	전기진단, 뇌성마비, 척추손상		
	박성흥	화	목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강윤규	화	월,목	통증, 관절염		
	조성일	수,금	수,금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이상현	목	화,수	척추디스크, 관절염, 어깨통증		
	김동식	화,금	화,금	간, 간지식, 담도, 췌장질환		편성범	수,목	화	뇌질환재활, 인지장애(소아성인), 연하(삼킴)장애		
	유영동	월	목	간, 담도, 췌장질환		윤형석	월,목	금	근골격계질환, 심재활, 일반재활의학		
	정성원	화,금	화,금	간, 담도, 췌장질환		문형임	월,목	수,금	림프부종, 척추손상, 일반재활의학		
	김선환	월,수	월,수	대장, 직장, 항문질환		일반의	화	수,금	일반재활의학과학		
	김진진	금	화	대장, 직장, 항문질환		이비인후과 2층 ☎5485	권종진	월,수	화	구강외과	
	곽정면	월,목	수	대장, 직장, 항문질환			임용규	해외연수:2013년5월까지		교정과	
	유동원	수	금	대장, 직장, 항문질환			류재준	목,금	월,목	보철과	
유병은	수	금	대장, 직장, 항문질환	전경아	화,목,금		월,목,금	보존과			
박관태	화	목	장기이식(신장, 췌장), 혈관질환, 하지정맥류	최연호	화,수,목		수,금	보철과			
정철중	월	월	장기이식(신장, 췌장), 혈관질환, 췌장질환	전상호	금		월,화,수,금	구강외과			
부윤정	목	화	소아외과, 탈장	김예진	화,목,금		월,목,금	치주과			
채인정	목	화	무릎, 인공무릎관절, 관절경, 척추	일반의	월,수,토		월,수,금	교정과[토오전:매주]			
이소혁	수	월	소아정형외과, 사지연장술, 족부	영상의학과 3층 ☎5571	이상화		월,수	월	코성형, 알레르기, 축농증수술, 비부비동 중앙		
박중훈	화	화	중앙, 외상		전영준		화,목	화	비교, 일반이비인후과학		
서승우	화	화	척추축단(매주)		정학현	목	월,목	만성중이염, 소아이비인후과, 어지럼증			
박중웅	금	수	수부, 미세수술		임기정	화,금	금	만성중이염, 어지럼증, 인공와우, 보청기			
한승범	월,목	목	무릎, 인공관절, 인공관절, 고관절, 골절, 외상학		장지원	월,수	수	만성중이염, 어지럼증, 인공와우, 보청기, 일반이비인후과학			
한승훈	화,토	화	중앙, 외상[토오전:4주]		정광윤	화,목	화	두경부암, 갑상선암, 부갑상선암(내시경, 로봇수술)			
정웅교	월,수,금,토	화	어깨, 팔꿈치, 스포츠의학[토오전:3주]		백승국	수	수	두경부암(후두암, 구강암, 편도암, 인두암, 경부종물)			
이대희	화,토	목	무릎, 스포츠의학[토오전:1,4,5주]		박민우	금	목,금	두경부, 일반이비인후과학			
강중우	토	월,수,금	외상, 수부질환, 손목		일반의	월-목	월,수	일반이비인후과학			
신성영	토	화,금	외상, 골절, 인공관절(술관절, 고관절)[토오전:2주]		이비인후과클리닉	장지연(수 중일): 어지럼 클리닉, 정광윤(목 오전): 갑상선 중앙 클리닉					
정형외과 3층 ☎5430	채인정	목	화	무릎, 인공무릎관절, 관절경, 척추	마취통증의학과 ☎5529	이남준	월,수,금	금	뇌혈관조영술 및 뇌동맥류 중재시술		
	이소혁	수	월	소아정형외과, 사지연장술, 족부		김윤환	월,화,목,금	월,화,목	간암 및 복부 인터벤션시술		
	박중훈	화	화	중앙, 외상		조성범	월,수,금	월,수,금	간암 및 혈관 인터벤션시술		
	서승우	화	화	척추축단(매주)		외국인진료센터 ☎5677	장성호	월,목	월,목	통증관리	
	박중웅	금	수	수부, 미세수술			박수영	화,금	화,수,금	통증관리	
	한승범	월,목	목	무릎, 인공관절, 인공관절, 고관절, 골절, 외상학			통합의학과 ☎6830	이희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한승훈	화,토	화	중앙, 외상[토오전:4주]				이성재	금	화,수,목	심장건강, 뇌경신건강, 피부건강, 여성건강, 암건강, 만성통증관리, 학습장애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
	정웅교	월,수,금,토	화	어깨, 팔꿈치, 스포츠의학[토오전:3주]							
이대희	화,토	목	무릎, 스포츠의학[토오전:1,4,5주]								
신경외과 3층 ☎5550	강중우	토	월,수,금	외상, 수부질환, 손목							
	신성영	토	화,금	외상, 골절, 인공관절(술관절, 고관절)[토오전:2주]							
	외상	월-금	월-금	외상							
	최추질환, 척추외상, 줄기세포치료										
	뇌종양, 소아뇌질환, 뇌혈관질환, 두통, 안면경련										
	최추질환, 척추외상										